제9강 무아와 불교적 명상

(1교시)

◆대승불교의 무아개념

※학습목표: Zen, 열반, 무주상보시, 무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Zen 불교와 nationalism
-nationalism으로의 Zen이나 nationalism화된 Zen은 없다. Zen을 일본의 nationalism identity로 서양에 소개했다는 것이다. 일본문화를 Zen으로 포장해서 선전했다는 의미에서 Zen nationalism이라 한 것이지 nationalism화 된 Zen은 아니다.

▲대승불교와 초기불교의 열반
-초기불교에서는 세속적 삶과 열반의 삶을 정확히 나눈다. 세속적 삶은 연기적 삶이다. 열반은 연기의 세계가 아니다. 이러한 초기불교의 열반관은 단절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승불교에 오면서 세속과 열반 관계를 연기라 본다. 세속이 생사의 세계다. 생사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고, 생멸의 세계가 곧 연기의 세계다. 초기불교는 이것을 초월한 세계를 열반이라 한다.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이러한 초월성을 허문다. 생사즉열반의 세계, 그것이 곧 공의 세계이다.

▲유가·도가와 무주상보시
-효와 예가 유가의 기본적 개념이라면, 자연·도·무위는 도가의 기본 개념이다.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일 때, 열반개념을 도가 쪽 개념에 가져온다.
-유가의 추구는 문명사회다. 효·예 자체가 문명화 된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형식적 규범이 아니다. 즉 문명사회의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의 약속이자 하나의 의식이다.
-도가에서 추구했던 것은 문명 이전, 혹은 너머의 자연 상태다. 우리는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문명사회를 넘어선 자연을 얘기해야 한다.
-보시는 제가사회와 출가사회의 이분법적 구조 속,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무주상보시는 다르다. 무주상보시는 보시가 발달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무아의 실현을 이야기할 뿐이다. 무주상보시에서 실행하되 내가 있다는 것에서의 실행은 의미가 없다.
-팔정도나 육바라밀이 같은 수행방법이고, 초기 불교에도 육바라밀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육바라밀의 실행은 공, 혹은 무아에 기초한 실행이다. 그러므로 각 조목을 점층적으로 하는 실행과는 다르다.

▲무아(無我)
-무아는 가능하다. 무아는 불교에서 실재적 경험이며 상태다.
-무아를 多我로 이해해도 되겠다. 불교적 사고에서 그 배후에 실재하는 단 하나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상적으로 생겨나는 다른 '나'들은 오히려 인정될 수 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사상적 측면에서, 무아는 인도의 우파니샤트에서 아의 개념에 대한 대항으로 이해된다. 또 인도유럽계의 언어적 측면에서, 주어가 상정되지 않은 언어가 불가능하다보니 다른 사유들의 설명을 위해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불교에서 인과가 동시에 생긴다. 내가 나무를 볼 때, 비로소 나무가 있게 되고, 나무를 볼 때, 비로소 내가 생긴다.

▲세계의 모습은 내 마음작용에 의한 은유인가?
-은유라기보다는 현현이다. 불교는 존재론적인 것을 인식론적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 불교에서 굉장히 면밀히 분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물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각되는 것을 얘기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2교시)

◆불교적 명상(지관)

※학습목표: 불교의 지관, 집착의 의미와 불교의 발달을 여러 각도로 살핀다. 그리고 몸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알아본다.

▲지관(止觀)
-모든 불교의 수행적 특징은 지와 관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명상상태에서 한 곳에 집중된 가운데 동시에 환하게 다른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때 지와 관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인지적기능이다. 어떤 명상법을 통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적 공헌이다.
-선종에서는 적적성성(寂寂惺惺)이라 한다. 적적은 calmness이고, 성성은 alertness다. 즉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의 환한 상태다.

▲초기불교에 대승불교 내용이 다 있다?
-초기불교 경전이 나오고 그 이후 대승불교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경전은 AD2세기부터 나왔고, 초기불교 경전은 AD5, 6세기에 이르러서야 나온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초기불교의 경전이 대승불교 경전에 비해 본래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다.
-팔정도 사상과 육바라밀은 item 상으로는 비슷하다. 하지만 이름만 같지 실제 수행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단순히 둘을 비슷하다 보기는 힘들다.

▲불교의 변증적 발전
-변증적인 것은 선형적인 것과 순환적인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변증적이라 하면 선형적 변증을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 있어서 변증은 원형적이다. 물론 이를 전체로 볼 때, 선형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작의 정견과 원형 과정에서 돌아와서의 정견은 다르다.

▲집착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집착은 아니다. 불교에서 집착은 항상 고통과 같이 간다.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이라면 그것은 집착이다.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집착이 아니다.

▲몸에 대한 불교의 입장
-초기불교에서는 몸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그 당시 인도사회에 만연하던 고행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정신적 순수성을 얻겠다는 것은 인류 문명사에 흔히 드러나는 방식이다. 또한 내 육신의 생물학적 한계만 아니라, 내 육신이 다른 이의 애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몸에 대한 부정적 인식론은 불교 내에서 곧 극복 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